



雲門

雲門승가대학
설립 2000년
여름호 통권 제 97호



불가 2550년 여름초 통림 제9호

雲門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산이 나를 편집부	3
죽림헌	4	화합하는 길 명성스님	4
교수논단	6	중국에서의 반야사상의 수용과 이해 IV 명법스님	6
차례법문	10	극락,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동원스님	10
학인논단	12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청소년 포교의 실제 유진스님	12
후박향기	16	시자의 수난시대 민재스님	16
이 한권의 책	18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화정스님	18
특별기고	20	배아연구와 생명윤리 I 김성철	20
想	25	兀爾忘緣 혜능스님	25
선사이야기	26	아름다운 경책 유덕스님	26
UN Vesak-day	28	오늘, 우리는 하나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효탄스님	28
담소	30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할까 신현림	30
Buddha's Answers	32	What is 연기? 편집부	32
편지글	33	항상 보고 싶은 은사스님께 도혜스님	33
사찰탐방	34	화엄의 세계 '서암'을 찾아서 진성스님	34
지금, 행복하십니까?	36	사별의 눈물을 거둔 두 사람 이미령	36
공간	38	어떤 성찰 해가스님	38
깨달음으로 가는 길	39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 편집부	39
끝없는 여정	40	나는 정말 수행자다 해준스님	40
수행의 두레박 I	44	김자반!! 그 행복의 결정체 선행스님	44
II	46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래하스님	46
운문논평	48	귀 기울여 듣는 일 편집부	48
운문소식	50		
등불	51	마음이야 어디 그렇게 되나요 이철수	51



산이 나를
 밝아 줄 줄이로 생강이
 있어 석가 아니라
 내가 아수 생강의
 푸른 산
 밧혀 살 줄이 있노라
 내가 곧 산이요
 산이 곧 나라
 희구름 사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느니
 알지 못하네

보우선사의 하음향 지경공
 효령이 명옥



화합하는 길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우리 운문사는 학인스님들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도량 곳곳에 자라나는 잡초도 뽑아야 하고, 나무며 꽃들도 손보아야 하며, 밭을 매고 상추며 호박이며 고추 등 온갖 푸성귀를 길러야 합니다. 또 이렇게 밭에서 거두어 온 야채들을 잘 다듬어 우리들의 밥상에 넉넉한 먹거리로 올려놓기까지 학인스님들의 노고가 참 많습니다.

일이 많다보면 몸도 지치게 되고 짜증도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 잘 지내던 도반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서로 돕고 잘 지내기 쉽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서로 화합하며 지내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친 몸과 빠듯한 일과 속에서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족하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각자 자신이 맡은 소임을 충실히 하고 본분에 편안할 수 있다면 다투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나라 때 조동종 스님인 雲居道膺선사는 그 분이 주석하셨던 운거산에 군인들이 침입해 왔을 때, 모든 승려들이 달아났지만 홀로 도망하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대장이 스님에게 “세계는 언제 태평해집니까?”라고 묻자, 운거선사는 태연한 얼굴로, “너의 마음이 만족한 다음에 태평해질 것이다. 천하가 불안한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다투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五燈會元』에는 도옹선사의 법어가 실려 있습니다.

세속의 선비가 승려에게 물었다. “내 집에는 술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 밥을 지으면 세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데, 천 사람이 먹어도 남는다. 상좌는 어째서 그런가?”

승려가 대답하지 못했다.

선사가 대답하였다. “다투면 부족하고, 양보하면 남음이 있다.”

참으로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해지고 다투면 다룰수록 부족해집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모두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부족할 게 있는가 싶어도 그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부족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족한 것을 밖에서 채우려고 한다면 천하를 다 주어도 채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하가 태평하려면 마음이 만족하면 됩니다. 만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양보하는 가운데 다툼이 사라지고 화합하게 됩니다. 외적 조건이 만족된 다음에 양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다툼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수행자는 자신의 분수에 의거해야지 분수 밖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화합은 바로 자신에게 만족하고 남에게 양보하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〇

중국에서의 반야사상의 수용과 이해 IV

명 법 / 운문승가대학 강장

목 차

1. 魏晉 玄學의 문제의식
2. 魏晉 玄學의 有無논쟁
3. 格義불교 시대의 반야에 대한 이해
 - 1) 格義불교
 - 2) 六家의 반야학
 - ① 心無宗
 - ② 卽色宗
 - ③ 本無宗

4. 승조의 반야사상

4. 승조의 반야사상

승조는 구마라집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高僧傳』에 의하면 중국의 해공제일로 칭송되었다. 중관철학을 중국에 도입한 이는 구마라집이지만 중국인으로서 그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소화하여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는 승조였다.

그의 저서 『肇論』은 「物不遷論」, 「不真空論」, 「般若無知論」 및 「涅槃無明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편의 논문은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었지만 내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다. 먼저 「물불천론」은 俗諦, 즉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운동과 시

간의 문제인데, 이것은 현학의 주제도 아니고 당시 반야학의 관심사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승조가 이 글을 쓴 취지는 인간이 가장 쉽게 느끼는 변화를 통해 無常을 설명하고 무상으로부터 제법의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물불천론」이 처음에 배치된 것은¹⁾ 반야학이 현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현상론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편 승조는 「부진공론」에서 직접 제법의 실상을 가지고 '공'을 설명하였다. '공'은 마음의 공이 아니라 개념 명언의 공이며 만법의 근원인 공이다. 공이 곧 연기이고 제법의 인이 연기이므로 공이지만 공은 또한 완공 단멸이 아니다. 그리고 「반야무지론」에서 승조는 실상을 관조하는 반야로부터 '공'이 성립될 수 있는 내재적 근거를 설명한 후 「열반무명론」에서 반야가 증입할 수 있는 경계를 보여 주었다.

유무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물불천론」과 「부진공론」에서 주로 탐구되고 있다. 「물불천론」에서 승조는 운동, 시간 등의 관념 뿐 아니라 변화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畢竟空의 이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불천론」에서 승조는 세계가 변화하지 않음을 네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動靜의 편에서 세계가 천류하지 않으며, 둘째 세계(境)의 편에서 사물이 천류하지 않으며, 셋째 古今의 편에서 시간이 천류하지 않으며, 넷째 시간의 편에서 因果가 천류하지 않는다.²⁾ 여기서 승조가 궁극적으로 논파하고자 한 것은 현학의 체용론이다. 현학에 따르면 변화란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 변화하는 현상 배후에는 항구불변의 동일자로 남아 있는 본체가 있다. 승조는 이러한 상식적 견해를 주장하는 '常人'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그와의 논쟁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람, 아지랑이, 일월, 산하 등의 자연물과 사시의 교체 운행, 그리고 인간의 생사를 포함한 모든 '物'은 천변하고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梵志는 나이가 들에 따라 홍안이 백발로 변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젊은이와 늙은이가 동일한 몸이며 백년은 하나의 바탕(小壯同體 百齡一質)이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변화가 동일한 사물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사물의 변화는 한 사물이 과거의 저 지점에서 현재의 이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만들

1) 「物不遷論」은 「般若無知論」이후에 저술된 것임에도 「肇論」의 처음에 편집되었는데, 승조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山德清 略註, 송찬우 역, 『肇論』 p.38.

어진 변화는 물 자체가 변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변화는 사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사물 자체는 변함없이 옛 그대로이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며 모든 변화가 사물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젊은이의 흥안과 늙은이의 백발은 모두 동일한 사람이 겪은 과정이며, 어떤 형태의 변화나 사물의 변화는 이 사물이 동일한 본질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저기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 사물은 한편으로 불변의 본질(本)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 변화하는 현상(末)을 가진다. 현상은 변화하며 일정하지 않지만 본질은 현상의 어떤 변화와도 무관하게 자신의 본질을 유지한다. 그래서 그것은 실재이며 항상하다. 현학은 이것을 無에 귀결시켰지만 이 無는 진정한 의미의 무가 아니라 추상적인 無이며 실제로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무이다. 그러므로 현학의 무는 불교의 공과 달리 불변의 실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승조는 '有物流動' 3)이라는 원칙을 반대하고 본체로서 항구 불변하는 物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렇다고 승조가 변화하는 사물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 사물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사물을 지각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물의 변화도 볼 수 없으며 그 결과 천류하지 않는[不遷]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승조는 '物'의 존재를 인정하였지만 그 존재는 단지 假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승조는 '緣起性空'의 사상을 근거로 물의 存在를 일종의 假相으로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卽俗見眞'의 진리에 입각하여 物의 변동을 가지고 물이 천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무릇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오듯이, 만물은 흐르고 움직인다는 것이 사람들의 평소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방광』에서 "법은 가고 오는 것이 없으므로, 움직이는 법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으며, 움직이고 뉘비끼는 것도 없다"고 하였으니, 움직이지 않는 것을 찾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쪼개어 고요한 것을 찾겠는가? 고요한 것은 반드시 모든 움직이는 것 속에서 찾아야 한다. 고요한 것을 움직이는 것 속에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비록 움직이지만 항상 고요하다. 움직이는 것을 쪼개지 않고 고요한 것을 찾기 때문에 비록 고요하지만 움직임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은 본래 다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다르다고 말한다. 4)

승조의 논증은 다음과 같다. 보통사람들이 '動而非靜'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과거가 현재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가 현재에 이르지 않는다면 현재도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사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물이 현재로 오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현재의 사물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조는 '靜而非動'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旋嵐 5)의 바람이 수미산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항상 고요하고, 강하가 다투거나 하듯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해도 흐르는 것이 아니며, 봄날 아지랑이가 나부끼며 올라간다 해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해와 달이 하늘을 지나간다 해도 우주를 한바퀴 돈 것이 아니다. 6)

승조는 움직임과 고요함을 구분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그가 꿰뚫어 본 것은 고요함과 움직임이 한 겹같은 세계이다. 움직이는 것이 곧 정지한 것이고 정지한 것이 곧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본체가 현상의 변화 밖에서 따로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현상의 用이 本體로부터 파생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승조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현상과 본체를 이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그가 주장한 것은 현상은 본체에서 파생되거나 본

3) 여기서 말하는 '物'은 無情物뿐 아니라 有情 중생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有物流動'이란 말은 '만상은 천변하여 머물지 않는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4) 『大正藏』45, 『肇論』p.151上. 5) 우주가 무너지는 壞劫에 부는 바람. 6) 『大正藏』45, 『肇論』p.151中.

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체가 곧 현상이고 현상이 곧 본체가 되는 체용불이적 세계관이다. 체가 곧 용이고 용이 곧 체인 원리 속에서 정적인 세계관과 동적인 세계관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본체와 현상의 구분도 그 의미가 없어진다.

승조는 動靜의 대립관계를 통하여 고요함을 구하되 움직임을 버리지 않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구하면 비록 만 가지 대상의 境界가 움직이더라도 마음의 경계는 맑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비록 움직이지만 항상 고요하다 라고 한 것은, 마음이 움직임에 상주하여 고요함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動靜의 관계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空'도 또한 '有'를 버리고 空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승조가 증명하고자 하는 物不遷의 원리는 바로 만물의 변천 가운데에서 俗諦에 상주하여 眞諦를 보는 것이다.

승조는 「부진공론」에서 당시 유행했던 3가지 학설을 하나하나 비판하였다. 당시 격의불교의 空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승조는 공을 생성론적 본체인 무명무형의 無, 혹은 실재하는 현상계에 대한 관념적 부정인 無心の 無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공이란 유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무가 아니라 유무의 중도임을 역설하였다.

모든 존재는 유가 아닌 까닭이 있으며 무가 아닌 까닭이 있다. 유가 아닌 까닭이 있으므로 유라고 하지만 유가 아니며, 무가 아닌 까닭이 있으므로 무라고 하지만 무가 아니다. 무라고 하지만 무가 아니므로 무는 절대적인 허무가 아니며, 유라고 하지만 유가 아니므로 유는 참된 유가 아니다. 유가 참된 유가 아니고 무가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와 무는 이름이 다를지라도 가리키는 바가 같다. ... 존재를 무라고 한다면 사견이 잘못되지 않게 되며, 존재를 유라고 한다면 상견이 옳게 된다. 그러나 존재는 무가 아니므로 사견은 잘못된 것이며 존재가 유가 아니므로 상견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말은 참으로 진제의 말이다.⁷⁾

유는 자성이 있음을 뜻하며 무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한다. 세계는 유라거나 무라고 규정될 수 없다. 세계가 유로 규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자성이기 때문이며, 무로 규정될 수 없는 이유는 가상으로서의 현상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을 유라고 말하면 연기를 설명할 수 없고 무라고 말하면 눈앞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즉 현상의 존재가 참이 아니기(不眞) 때문에 空하다. 공하다는 것은 존재가 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상견과 허무를 말하는 단견이 갖는 사실과의 괴리성을 모두 극복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말한다. 공이 비유비무의 중도인 것은 세계가 연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라거나 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세계를 규정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

용수는 연기를 존재의 본질적 의존성으로 해석하였다. 모든 존재가 연기적으로 있다는 말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의존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공이다. 따라서 공은 연기의 다른 표현이다. 만약 자성적 존재를 상정한다면 그 존재는 연기적이지 않게 되며 모든 것이 연기적이라는 사실에 위배된다. 따라서 연기는 궁극적으로 무자성공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승조는 이러한 연기공의 이론에 의거하여 세계를 유로 파악하는 것과 무로 파악하는 데서 오는 오류를 지적하여 비유비무의 중도로서의 공을 이끌어 내었다.

용수가 공의 사상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존재 요소의 실체성을 전제하는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 이론이었다. 따라서 그는 세계가 유가 아님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승조의 시대에 현학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공을 무로 해석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는 공이 무가 아님을 강조하게 된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만물을 씻어 버리고 감각을 틀어막아 고요하고 텅 비게 된 뒤리야 진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진실로 사물에 즉하여 통하기 때문에 사물 또한 거역하지 않는다.⁸⁾

여기서 승조는 공이 결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

7) 『肇論』(대정45, 152中). 8) 『肇論』(대정45, 152中).

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공이란 현상의 올바른 모습 그대로의 실상이며 진여이기 때문에 현상을 떠난 공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승조는 공을 현상을 떠난 어떤 절대적 존재로 보는 견해 또는 현상계를 탈살해 버린 후에 나타나는 허무로 보는 것을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의 공에 대한 이해는 격의불교의 공에 대한 이해와 다른 것으로 용수의 공사상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이제 비로소 공은 형이상학적 또는 생성론적 본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점이 바로 승조가 진정한 격의불교의 비판자로서 참된 공의 의미를 처음으로 드러내었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격의불교의 세계관은 본무종의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심무의의 관념론적 세계관으로 대표된다.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형이상학적 실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관념론적 세계관은 관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떨어진 다른 세계를 인정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의 가장 큰 오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두 세계가 대립될 때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승조는 이런 오류가 두 세계관 모두 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세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길은 세계가 공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형이상학적 실재는 영원하거나 초월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추구가 만들어 낸 가공의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을 떠난 다른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세계인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승조는 현실을 떠난 곳에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진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승조의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현상론적이고 일원론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 현상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기동일성을 갖지 못하는 그대로가 바로 현상의 참된 모습이며 진리라는 의미이다. 연기로서의 속제에 의한 세속적 질서의 긍정과 공으로서의 진제에 의한 종교적 초월은 不二의 중도로써 통일된다. 이것이 그의 반야 이해가 위진 현학의 긴 모색 끝에 다다른 결론이고 중국적 사유로써 불교를 자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중국불교가 현세간 중심으로 전

개되고 현실을 중시하는 중국 전통사상과 모순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승조가 구축해 놓은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승조의 반야사상은 그 용어가 『老子』나 『莊子』 『제물론』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구마라집에 의해 도입된 중관사상의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승조가 받아들인 반야학이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인도적 기원을 가진 것이지만 『肇論』에 드러나는 그의 반야 이해는 완전히 자기화된 것이다. 그의 철저한 空 이해에 의하여 마침내 불교가 중국에 뿌리박게 되었으며 이후 중국불교의 특징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방향설정을 하였으며 선종이라는 자기형식을 창출할 때에도 승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의 반야사상은 중국불교 뿐 아니라 현학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僧肇, 『肇論』, 대정45권.
- 慧皎 撰, 『高僧傳』, 대정51권.
- 吉藏, 『中論疏記』, 대정42권.
- 慈山德清 略註, 송찬우 역, 『肇論』, 고려원.
- 유익경, 김장환 역, 『세심신어』, 살림, 1996.
- 왕필, 임채우 역, 『왕필의 노자』, 예문서원, 1997.
- 鎌田茂雄, 장휘옥 역, 『중국불교사』, 장승, 1997.
- 여정, 각소 역, 『중국불교학강의』, 민족사, 1992.
- 임려석, 김백희 역, 『왕필의 철학』, 창계, 1999.
- 방립천, 이기훈 외 역, 『문제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7.
- 박해당, “중국 초기 불교의 공에 대한 이해”,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 예문서원, 1998.
- 원정근, “위진 철학에서 ‘무’와 ‘유’의 논쟁”,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예문서원, 1994.
- 이원영, “왕필의 본말 세계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풍우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1999.
- 노사광,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 탐구당, 1988.

극락,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동 원 / 대교과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이렇게 물어옵니다.
“스님, 극락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디서는 부처님은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하고,
또 어디서는 ‘백천 만년 선행을 닦더라도 극락에 갈 수 없다. 극락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

대중스님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극락은 연기로서 존재할 뿐, 방편으로써 있다, 없다 라고
施設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모두 방편으로 施設한 것이라,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취해 집착하면 바로 邪道에 떨어지
나니라.”

한때, 저는 방편에 떨어져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바로는 3아승지겁의 선행을 닦아야 성불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열반경에는 소를 잡던 광
악도아가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수행의 과정 없이도 한 마음만 밝히면
살인자도 성불할 수 있단 말인가?

성불의 기준, 조건은 무엇일까? 닦으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그러던 중, 보조스님의 글을 보다가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3아승지겁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학자들은 퇴굴심을 내기 쉬우므로 頓悟의 처방을 주고, 나
는 이미 부처라고 생각하는 선학자들은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여 수행을 게을리하기 쉬우
므로 漸修의 처방을 준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시설한 것을 법에 차별이 있지 않나 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근기는 차별되지만, 모두에게 佛性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한 것처럼, 방편의 말은 차별되지만 뜻에 있어서는 평등한 것인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삼라만상은 차별되지만, 모두 연기적 존재라는 점에서 평등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알면서도 왜 쉽게 차별된 그 말에 떨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중도를 설하셨듯이, 평등성이나 차별성 그 어디에도 치우쳐서는 안되는데, 습관처럼 차별성에 치우쳐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강원시절, 저는 '수행에 있어서 도반은 전부다'는 말에 집착해서 '웬참은 도반 어디 없나?' 하고 제 자신은 보지도 않고, 바깥의 64명의 도반스님 각각의 차별된 모습만 보고서 시비분별 했습니다. 그러고는 實다운 모습을 본 것 인양 집착해서 親疎의 마음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스로 괴롭더라구요. '머리잡은 중이 이 뭐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화엄반이 된 지금, 물론 아직도 시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차별되지만 평등한 저를 비롯한 65명 모두 각각 무애함을 觀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방편의 차별된 말에 치우쳐 버리는 것은, 서울 가는 방편은 여러 가지인데, 차별된 어느 하나를 고집해서 집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TX가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 또 혹은 걸어서 가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바다는 차별된 백 개의 강물을 거두어들여 하나의 맛을 이루지만, 백 개의 강물은 결코 바다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차별성이나 평등성 그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觀하는 것, 곧 중도의 원융한 눈으로 바라보면, 事無碍한 두두물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우친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두두물물을 바로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습게도 방편의 차별성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법문을 하면서, 또 저는 사사무애라는 방편에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에게 도반스님은 말합니다.

"實參이 함께 되어야지, 언제까지 머리로 셋팅만 할꺼야."

2%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대중스님 여러분!

화엄경을 보고 있는 지금 저의 분상에서는 차별성, 평등성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사사무애의 눈으로 一切法을 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本來面目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력적인 이 길을 함께 가는 대중스님!

감사합니다. 성불 하십시오. ॐ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청소년 포교의 실제

유 진 / 대교과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필요성
2. 주5일제 수업에 의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사례
 - 1) 내소사 불교 생태학교
 - 2) 부산 우곡선원 참선 프로그램
3. 주5일제 수업에 의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방향

III. 결론

I. 서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창의성, 문제 해결력, 감성, 인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 및 자기 주도적 학습과 평생교육

을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4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¹⁾

즉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과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재고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교육의 실시와 가족 간 유대 증진,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²⁾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불교계에 있어서도 청소년 포교의 좋은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주5일제 수업과 관련지어 아래에서는 자아 정체감 형성으로 인한 자아 발견과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나타내는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불교계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실제 사례를 몇몇 사찰의 경우를 통하여 알아보려 한다. 이것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청소년 법회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포교 프로그램의 일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 본론

1.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탐색기'로서 자

1) <http://5days.edunet4u.net>

2) 2004년 3월 우선시행학교를 확대 운영하고(운영 형태 : 월1회 실시), 2005년 3월부터는 월 1회 모든 학교의 실시 및 이후 실시 추이를 고려하여 '월2회, 전면실시' 등 단계적 확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모색하고 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내적인 세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 독자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아 정체성의 위기를 갖게 된다.³⁾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소중함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깊이 생각하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특히 이 시기의 사회화 과정에 따라서 인생과 인격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세계 최장의 입시 노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교육 현실은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함몰된 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학습 기계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⁴⁾ 해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고 있으며, 중·고생의 절반 이상이 성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통계 조사는 이미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가 위험 수위 이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주5일제 수업은 학생들의 인권, 건강권, 자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시 경쟁의 타파'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양극화와 교육복지' 문제에 대한 교육 현장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주5일제 수업에 있어서 불교계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년 포교의 현실에 있어서도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야말로 교육 문제 해결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런 청소년 포교의 방법으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의 불안하고 모호한 정서적 특징에 대하여 정체성 확립 및 심신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명상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은 교육적 효과에 있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2. 주5일제 수업에 의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사례

1) 내소사 불교 생태학교

생태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여가 활용과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한 내소사의 불교 생태학교는 불교문화를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주5일제 수업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내소사 불교 생태학교

3) 『청소년심리학』(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양서원, 2004), pp.3~7

4) <http://www.eduhope.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아이들 살리기 운동'의 기자회견에서는 경쟁의 논리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다루고 있어 청소년기의 정서적특징에 대한 심도 깊은 문제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프로그램은 사찰 소개, 전나무 숲에서 청진기를 이용한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 숨소리 듣기, 생태해설가 이현숙씨가 진행하는 애벌레와 같은 작은 생명에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애벌레 놀이, 새만금 갯벌 탐방 등 쉬는 토요일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⁵⁾

2) 부산 우곡선원 참선 프로그램

토요 휴업일 학생지도 대안으로 명상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과 올바른 인성을 정립하고 학습 능력을 향상, 능동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여진 부산 우곡선원 참선 프로그램 또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몸과 마음 가꾸기,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 원만한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한 명상, 선기공, 호흡법, 3분명상, 토론 등으로 이어지는 교육 내용은 시험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키우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등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⁶⁾

3. 주5일제 수업에 의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방향

주5일제 수업의 실시에 있어서 그 활용 방안이 가장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지역 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이다.⁷⁾ 지역사회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의 상대적인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한층 높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사찰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들은 주5일제 수업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고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조금만 공유한다면 공교육 문제의 해결과 학생들 개인의 신상 문제 및 정체성 확립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역사회 시설의 탐방으로서 사찰 방문이라는 1차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를 통해서는 불교에 대한 자연스런 접근, 사찰에 대한 이해, 우리 문화재 탐방 등을 할 수가 있다. 특히 타종교 학생들의 사찰 방문을 유도하여 불교 및 불교문화재를 통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환경 친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회성 요소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불교 생태학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청소년 포교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존 청소년

5) 현대불교, 2005-04-28.

6) 주간 불교 기사 2005-05-06, 토요 휴업일 명상 [참선] 교육 개설.

7) 「2004학년도 주5일 수업제 운영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법회의 형식에 좀 더 교육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부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내면 성찰의 진지한 계기가 될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활용 연구는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교육 효과가 높은 경우가 될 수 있다.

III. 결 론

이상으로 주5일제 수업의 실시에 따른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교육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한 불교적 관점의 해결 방안일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이 등장하게 된 여러 배경 중에서도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 이로 인한 학생들의 존엄성과 인격이 무시되고 있는 교육 현실이야말로 주5일제 수업 도입과 확대 실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자아 정체성 확립을 통한 인격의 완성이라는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을 생각해 볼 때 교육 현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위기들은 불교계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과 활용에서 충분히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이어온 사찰이나 몇몇 대형 사찰을 제외하고는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인한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그다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한국 불교계의 현실이다.

굳이 불교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 법회의 운영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 불교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이에 대한 종단 차원의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지원,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은 청소년 포교와 아울러 사회 안에서 종교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1. 『심상치료』, 최범식, 하나의 학사, 1999.
2. 『청소년 포교 지침서』,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2001.
3. 『청소년심리학』,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공저, 양서원, 2004.
4. 『2005 청소년 백서』, 청소년위원회, 2005.



시자의 수난시대

민 재 / 사교과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묘한 것 같다. 행자교육 때 주지스님께서 어른스님 시봉 잘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 강사스님 시자 살면 무지 힘들겠'다 라고 스쳐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뒤, 주지스님 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스님은 몇 살인고? 그래, 아직 어리니까 댄 생각하지 말고 공부 마치고 꼭 운문사 와"라고 하신 말씀이 인연이 되어 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더군다나 3: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주지스님 시자를 살게 되었다.

도량 내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 막바지 추위를 이겨낼 즈음.

잔뜩 긴장한 채 인수인계장이 닳도록 쳐다보며 어설픔게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보시며 "나는 내 물건 제자리에만 두면 돼. 그것만 잘하면 어려운 거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주지스님이 어느 새 은사 스님같이 편해지기 시작할 무렵, 미숙하고도 어설픔 나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지스님께서 구족계 수계 산림 때문에 며칠 출타하셨을 때의 일이다.

주지스님 계실 때 못 다한 정통 대청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명주 목수건이 마른 대야에 담겨 있는 것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물에 푹 담귀 조심스레 빨다보니 문득 처음에 어떻게 접혀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길이는 또 왜 이리 긴지 내 키의 2.5배는 되는 것 같았다. 보통 목수건은 살포시 짜서 방바닥에 짜~악 펴서 말리면 굳이 다림질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길어서 방바닥에 널 엄두가 나질 않아 일단 반 스님 한 명 붙잡고 빨랫줄에 널어 말렸다. 주지스님께서는 시자한테는 풀빨래도



안 시키거니와 잘못도 다리는 걸 무척 싫어하시는 것이 문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녔다. 근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방바닥에 널까?' 하다가 다시 물에 담겼다. 그러나 역시 길이가 문제였다. 화엄반 부반장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해 들어서 시자 방 끝에서 끝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쭈욱 펴는데 이걸 어째! 워낙 길어서 펴는 동안에 다 말라 버린 것이었다. 또 실패다!! 괜히 빨았나 후회가 막심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교무스님께 말씀드렸더니 풀을 살짝 해서 다리는 건 괜찮다고 하셨다. 그래 풀을 하자! 그러나, 풀 하는 건 보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이 전혀 없던 나에게, 주지스님의 명주 목수건을 나의 첫 풀 상대로 삼기엔 너무 대단한 도전이었다. 손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염치 없지만 풀 잘하는 우리 반 반장스님을 울력 도중에 살짝 데려와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해 달라고 했다. 착한 우리 반장스님, 풀 해서 다림질까지 완벽하게 해 주었다. 드디어 목수건이 제 모습을 찾았다. 주지스님께서 돌아오셔서 목수건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하셨다. 그 기나긴 실패의 과정들을 모르신 채 ... (장장 2박 3일이 걸렸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등 만들기 대중울력 하던 날,

풀칠삼매에 푹 빠져있는데 주지스님께서 찾으신다고 해서 놀라 갔더니 "내 잠적삼 풀 좀 해 볼래?"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네!!" 라고 일단은 대답해 놓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 화엄반 부반장 스님이 해 드린다고 했더니 시자가 풀 손질 잘 하더라고 시자를 시켜보신다며 미소 지으셨단다. 대답은 씩씩하게 해 놓은 터라 속으로 애가 탔다. 대중울력이라 도반스님들에게 도와 달라 말도 못하고 ...

기왕 이렇게 된 이상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일단 적삼을 들고 부반장 스님을 정통으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좀 해달라고 했다. 부반장 스님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대답을 씩씩하게 했냐고 놀렸지만 이미 나의 실체를 아는 이상 부끄러울 게 없었다. 나의 풀 공포증은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다. 그러나 "시자 덕분에 풀 먹인 옷도 입어보네"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에 그간의 온갖 어려움과 공포증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 보니 주지스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시자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냥 모르는 척 이해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철 시자소임을 살면서 나의 어리버리함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화엄반 부반장 스님이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었고, 반 스님 중 꼭 한 명씩 지원 받아 데려가는 걸 보면서 "민재스님, 뭘 믿고 시자 자원했대? 민재스님은 시자에 시자를 둔 것 같아" 하며 놀리긴 했지만 다들 너무 잘 도와줘서 나의 사교 첫 철 시자소임,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

이제 호거산이 온통 푸르다. 아직도 주지스님을 보면 달려가야 될 것만 같은 시자 후유증이 꽤 오래 간다. 환하게 웃으시는 주지스님의 살인미소(?)가 무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시원한 빗줄기처럼 우리들의 일상에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주지스님은 아실까? ८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화 정 / 대교과



출가하기 전 늦은 나이로 대학생활을 하던 나는 어느 스님에게서 책 한 권을 추천 받았다.

지금 제목과는 좀 다른 “화요일을 모리와 함께”라고 기억한다.

눈이 툭툭 붓게 올랐던 몇 장면들과 ‘좋은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 책.

이 책을 또 통도사 자비원에서 실시한 호스피스 교육시간에 추천을 받게 되었다.

제목을 달리한, 하드커버 양장본으로 변화된 모습과 재회하면서 복잡, 다양했던 감동과 다시 읽게 된 즐거움, 설렘 등으로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

이 책은 루게릭 병에 걸린 노교수와 그의 오랜 제자 간에 나눈 대화록이면서, 노교수의 회고록이라 할 수 있다.

모리 슈워츠 교수는 60대까지 친구들과 수영하고 춤추고, 학교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어느 날 치료제도 없는 불치병인 루게릭 병에 걸리고 만다. 루게릭 병은 척수신경이나 간뇌의 운동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근육이 위축되어 마비되는 질환이다. 그러다 보니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데도 심각한 고통이 따른다. 그렇지만 정신은 완벽하게 말짱해 그 고통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 마디로 정말 이지 몸쓸 병이다. 그러나 현대의 의학으로는 치료방법이 없다. 공식병명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저널리스트인 미치 앨봄은 어느 날 TV를 시청하다가 자신의 대학 은사인 모리 슈워츠 교수가 루게릭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6년 만에 다시 은사를 만난 미치는 죽음, 두려움, 나이가 든다는 것, 탐욕, 결혼, 가족, 사회, 용서, 의미 있는 삶 등의 주제로 매주 화요일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대화를 이어간다.

여러 주제들 중에 나에게 화두로 남은 것은, ‘죽음’ 이었다.

모리 교수는 말한다.

“죽게 되리란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지는 않지.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텐데.”

“미치,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だね.”

나에게 있어 ‘죽음’은 천리, 만리 떨어진 외계의 일이었기에 내가 풀어야 할 숙제도, 나의 죽음도 그리 급하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을 읽는 내내 ‘죽음’이라는 물음은 나를 근원적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람들은 죽음이 자신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의 욕구와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 더 큰 차, 더 좋은 집 등을 원한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만족은 순간일 뿐,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 받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 보는 것, 돈과 권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 나와 상대방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달이 차면 다시 기울듯이, 왜냐하면, 生死의 문제는 시시각각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딱 떨어져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마음 일어나면 生이요, 한 마음 사라지면 死요 … 그러기 때문에 바로 눈앞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當處便寂이라고 고인은 말씀하신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죽음은 중요하지 않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숨은 ‘봄 서리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아 비록 四大를 붙들어가 지려 하나 항상 서로 어기고 등져 아침엔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지라 찰나에 다른 세상이라’는 선사들의 말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한정된 것이라면, 하루가 다 갔다고 다리 뻗고 울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되문게 될 것이며, 적어도 부질없는 일들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지 않을 것이다.

미치 :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모리 : 불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게. 매일 어깨 위에 작은 새를 올려놓는 거야.

그리곤 새에게 ‘오늘이 그날인가? 나는 준비가 되었나?’

나는 해야 할 일들을 다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나? 라고 묻지.

어깨 위의 작은 새에게 살며시 물어본다. 鶯

배아연구와 생명윤리(I)

- 불교의 생명관과 살생의 범위 그리고 배아연구의 바람직한 방향¹⁾ -

김성철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 1. 논의의 전제
- 2. 문제의 제기
- 3. 불교의 생명관
- 4. '인간' 개념과 살생의 범위
- 5. 인식의 극한에서는 가치가 존재를 변화시킨다.
- 6. 배아연구와 그 활용기술의 바람직한 방향

1. 논의의 전제

불교윤리에서는 '타자와 관계된 수평적 윤리'와 '자아향상과 관계된 수직적 윤리'라는 두 방향의 축을 추출할 수 있다. 불교적 선(善)의 경우 타자를 돕는 행위는 '수평방향의 선(善)'에 해당하고, 고결하게 살면서²⁾ 명상을 통해 깨달음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수직방향의 선'에 해당한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수평적 악(惡)'과 '수직적 악'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직조(織造)된 불교의 윤리체

계는, 과학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과학이론'의 탐구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고 우리의 인지(認知)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불교의 '수직적 선'과 상통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경우 선과 악의 양면을 갖는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측면은 '수평적 선'이지만, 그 활용 과정에서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수반할 경우 이는 '수평적 악(惡)'이다.

생명과학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다. 생명에 대한 전통적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생명의 실상에 대한 여실지견(如實知見)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1) 본 논문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필자의 논문인 「생명공학에 대한 불교윤리적 조망」(『불교문화연구』, 제3집, 경주,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2)과 논평문인 「생명조작」에 대한 토론문(『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심포지엄 자료집』(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인드라마생명공동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005년 12월 3일)과 신문잡지 기고문인 '우리가 선도하는 화염적 기술문명'(『불교평론』, 제23호 권두언, 2005)와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줄기세포연구'(『불교신문』, 2005년 6월 셋째 주)에서 발췌한 것이다.

2) 梵行(brahmacārya): 淫行을 끊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기술은 ‘1’과 ‘0’이라는 두 가지 숫자의 조합에 근거한 디지털의 기술이다. 생명공학기술의 재료가 되는 DNA 역시 ‘아데닌(A)’, ‘구아닌(G)’, ‘티민(T)’, ‘시토신(C)’이라는 네 가지 염기(鹽基)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적이다. 대립 쌍들의 조합으로 구축되는 디지털 세계는 연기(緣起)적 세계이다.

— ‘우리가 선도하는 화염적 기술문명’에서 —

이론은 불교의 ‘수직적 선(善)’에 일조(一助)한다. 또 그 기술의 경우도 배고픔과 질병과 노동의 괴로움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수평적 선’이다. 그러나 그 연구와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다른 수많은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수평적 악’이다.

생명공학을 포함한 의료기술에는 인류의 질병 치료라는 밝은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위해 실험실에서 실행당하는 무수한 실험동물들의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실험동물들이 인류의 복지와 안락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 인류라는 생명군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풍요는 다른 생명군의 처참한 희생을 딛고 이룩된 것이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의 기준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 ①살생하지 말라, ②훔치지 말라, ③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④거짓말하지 말라, ⑤술 마시지 말라는 오계(五戒)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인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사람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불교적 견지에서 볼 때 다른 생명군의 희생을 수반하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완전히 금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다른 생명체를 해치지 말라.”는 조항을 제1 원칙으로 표방하는 불교의 윤리관에 의거할 때, 지금 지구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물실험과 기축도살과 수렵과 어업 등 모든 살생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육식을 금해야 하며, 출가한 구도자가 되는 것만

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그러나 불교에서 제시하는 이런 최선의 삶을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언덕 위에 서서 굴러 내려가는 수레를 향해, 내려가지 말라고 외쳐 보았자, 수레는 계속 굴러가다가 나뭇그라지듯이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향해 순정 무구한 불교의 가르침을 강요해 보았자 헛수고가 되기 쉽다. 굴러 내려가는 수레를 보았을 때, 보다 바람직한 행동은 수레에 뛰어올라가 그 방향을 조정하여 안착하게 해 주는 것이리라.

불교의 가르침을 세속인 우리의 사회에 접목시킬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최선책(最善策)이 아니라 차선책(次善策)을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살생을 금하는 불교이지만, 신라시대에 원광법사가 세속오계에서 ‘잘 가려서 살생하라(殺生有擇)’고 가르쳤듯이 …

생명공학연구에 대한 불교적 차선책은, ‘악업을 아예 짓지 못하도록 연구와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를 통해 성취할 ‘선업을 최대한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하의 논의는 배아연구와 관련한 불교적 최선책이 아니라 이러한 차선책에 대한 모색이다.

2. 문제의 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정란이나 태아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와 기술은 대부분 2세의 출산과 관계

된 것들이었다.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인공적으로 결합시켜 수정란을 만들어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갖게 하고, 태아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기형아 출산을 예방한다. ... 그런데 최근 들어 생명공학기술이 개발되면서 질병치료를 위한 '도구'로 수정란과 태아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수정란이 약 7일가량 분열을 계속하면 그 내부 한 귀퉁이에 균일한 세포 덩어리가 생기는데 이를 '줄기세포', 보다 정확히는 '배아줄기세포'라고 부른다. 식물의 줄기에서 수많은 가지가 자라나 하나의 나무로 되듯이 이 줄기세포는 다시 피부, 근육, 뼈, 신경, 혈관, 간, 심장 등의 각종 장기를 이루는 세포들로 변화하면서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자라난다. 그리고 약 10달이 지나면 태아는 완전히 성숙하여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온다.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생체 밖의 시험용기에서 배양이 가능하며, 적절한 물리화학적 조건이 주어질 경우 시험용기 내에서 신경, 혈관, 연골, 심근 등 그 어떤 장기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척될 경우 실험실에서 만들어 낸 장기를 환자의 몸에 이식하는 '꿈의 의학'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최근 체세포복제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더욱 진척될 경우 환자에게 면역 거부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장기의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기술을 통해 고통 받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분명히 '선(善)'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하고 시술하는 과정에서 '악(惡)'이 행해진다면, 우리는 그런 의료기술의 연구나 개발을 섣불리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은 마치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고 한다. 칼이 요리를 하거나 환부를 도려내는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지만 남을 해치는 나쁜 일에 쓰일 수도 있듯이, 과학기술은 그 쓰임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줄기세포연구를 포함한 생명과학기술은 그 쓰임은 물론이고 그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이 인공수정을 통해 생성된 배아든, 체세포복제를 통해 생성된 배아든 배아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하여 각종 실험을 하는 것은, '성체로 성장 가능한 개체'를 해체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살인행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에 따라 '살인의 범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아직 이복구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해체하는 것은 살인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명과 관계된 과학연구 분야에서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줄기세포 연구뿐만이 아니다. 외대생들의 해부학 실습을 위한 시신기증,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의 장기적출 등의 경우, 개신교, 가톨릭, 불교와 같은 우리 사회의 주류 종교 모두 그와 관련된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들 대부분이 그것이 '선(善)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身體髮膚는 受之父母하니 不敢毀傷이 孝之始也"라는 공자의 말씀을 신봉하면서 "차라리 내 목을 자를지언정 상투를 자를 수 없다"고 항거했던 최익현 선생과 같은 과거의 유림들에게는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을 홍보하고 동참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후레자식'들로 비칠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질병의 치료를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지만, 불전의 가르침을 요약한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에서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 고로써 양약을 삼아라"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공자 역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면 夕死可矣)"라면서 '생존'보다 '도(道)'를 더 중시했다. 과거 성현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치병'의 '의료행위'가 진정한 지상가치인지 다시 물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각종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개발을 위해 수많은 실험동물들이 희생되어 왔지만, 서구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들이 받을 고통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印度)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간을 죽이는 '살인'은 물론이고 다른 동물을 죽이는 '살생(殺生)' 역시 '악한 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살생' 조차 문제시하는 종교인들, 또 인류의 복락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실험동물들에게는 생명공학을 둘러싸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윤리적 논란이 '인간 종(種: Species)들의 생뿔맞은 호들갑'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생명윤리의 문제, 의료기술의 문제와 관련된 논란의 배후에는 그 당사자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종교관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에 합의의 통틀을 통해 단일한 윤리지침을 창출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아

연구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생명윤리지침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일까? 생명윤리

역시, 진정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목소리 큰 쪽'이 승리하는 헤게모니의 문제일 뿐인가?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종교인들에게 그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요구할 때, 종교인이나 윤리학자로서 가장 안전한 길은 그러한 과학기술을 무조건 금지하라고 조언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 경우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전 인류를 실은 수레가 조타수를 잃고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고 있다. 언제 엎어질지 모른다. 위태롭다. 이 때 언덕 위에 앉아 수레를 향해 멈추라고 소리쳐 보았자, 길

잃은 수레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3. 불교의 생명관

배아연구에 대해 불교적으로 조망해 볼 때 윤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과정, 또는 시술과정에서 일어나는 '살생', 또는 '살인'이다. 본고 서두에 소개한 바 있지만 불교윤리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수평윤리'와, '내가 고결하게 삶으로써 부처님과 같은 성자로 향상해 가는 수직윤리'의 이중구조로 짜여 있는데, '살생하지 말라'는 강령은 수평윤리의 요소가 강하다. 내가 남을 괴롭혀서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현생이나 내생에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살생하지 말라'는 윤리적 지침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이 '생명체'이며, 무엇이 '살생'인지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을 불경에서 찾고자 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불경의 가르침이 각각각색이기 때문이다. 어떤 불경

인간, 그리고 천신(天神) 등만을 생명체로 간주하고, 다른 불경(『화엄경』 등)에서는 동물은 물론이고 산천초목(山川草木) 등 식물과 광물 모두를 생명체로 취급하며,³⁾ 또 다른 불경(『금강경』 등)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조차 생명체라는 생각(중생상(衆生相))을 내지 말라고 가르친다.⁴⁾ 만물을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세 종류로 구분할 경우, 『아함경』에서는 동물만을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화엄경』에서



3) 『世主妙嚴品』에서, 인격화된 자연, 즉 日光보살, 月光보살, 主夜神, 主盡神 등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을 버리라는 『금강경』의 가르침.

는 동물과 식물과 광물 모두가 생명이라고 가르치며, 『금강경』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조차도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가르침 가운데 어느 것에 근거하여 생명체의 범위와 살생의 의미를 규정해야 할까?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친다. 하나는 '참된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분별에 부합한 가르침'이다. 불교 전문용어로 전자를 '진제(眞諦)'라고 부르고 후자를 '속제(俗諦)'라고 부른다. '참된 가르침'인 진제에서는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의 구분이 무너진다. 그래서 "동물은 물론이고 산천초목(山川草木) 등 모든 것이 살아 있는 생명이다."라고 절대 긍정적으로 말하든지(『화엄경』), "이 세상에는 생명이랄 것이 없다"라고 절대 부정적으로 말한다(『금강경』). 이러한 『화엄경』이나 『금강경』의 가르침 모두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무차별적 가르침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진제에서는 비단 '생명'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들의 테두리가 무너진다. 마치 뺨과 이마에 테두리를 그을 수 없듯이 ... 따라서 이런 진제에 근거해서는 생명윤리가 정립되지 않는다. 생명윤리는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반인들의 상식과 분별에 부합한 가르침', 즉 속제에 근거해야 정립가능하다. 그리고 동물만을 생명으로 간주하는 『아함경』의 가르침이 바로 속제인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생명체'를 불교용어로 '중생(衆生: Sattva)'이라고 부르는데, 속제에서는 동물과 식물과 광물 가운데 오직 동물만을 중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런 속제에 근거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자. 현대 생물학에서는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도 생물에 포

함시키지만, 『아함경』과 같은 초기불전에서 말하는 생명체인 '중생(衆生)'의 범위에 식물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식물에는 영혼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물은 유전인자를 갖는 세포의 집합체일 뿐이다. 동물의 몸 역시 세포의 집합체인데, 손발과 같이 의지적 행위를 할 수 있는 행동기관을 갖고 있고, 눈이나 귀와 같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통로를 갖고 있기에 영혼이 부착될 수가 있다. 불교용어로 말하면 '업(業)'을 짓게 하는 '운동기관'과, '과보(果報)'를 받게 하는 '지각기관'을 가진 동물만이 생명체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동물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죽은 영혼은 자신이 깃들 육체를 찾아 49일 동안 허공을 떠돌아다닌다.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영혼을 불교에서는 '중음신(中陰身)'이라고 부른다. 사망과 탄생의 중간(中間) 단계에 있는 몸(身)이란 의미이다. 대부분의 중음신은 사망 후 늦어도 49일째 되는 날 수정란에 부착된다. 그 때 수정란은 비로소 새로운 육체로 자라나게 되고 죽은 후 허공을 헤매다 그에 부착한 영혼은 다시 새로운 생(生)을 시작하는 것이다. 수정란 이후 자궁 속에서 커 나가는 태아의 모습에 대한 불전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

- 깔라라(Kalala ㉟, 제1주): 마치 참기름 방울이나 두명한 우유기름과 같다. 또는 작은 파리가 입에 머금은 물방울보다 작거나, 바늘 끝에 맺힌 참기름 방울, 한 가닥의 머리카락 끝에 맺힌 참기름 방울과 같다.
- 이부다(Arbuda ㉟, 제2주): 고기 썩은 물과 같은 색, 부어오른 종기와 같다.
- 페시(Peśī ㉟, 제3주): 정제된 납덩이의 색으로 백색의 작은 후추 씨와 같다.
- 가나(Ghana ㉟, 제4주): 타원형의 작은 알과 같다.
- 빠사카(Prāsākhā ㉟, 제5주): 5가지 종기모양이 형성된다.(팔다리와 머리의 자궁)

- 다음호에 계속 -

5) 미산, 『생명조작』,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심포지엄 자료집』(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인드라마생명공동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005년 12월 3일)에서 발췌.

兀爾忘緣

혜 능 / 사집과



아름다운 정책

- 『위산 대원선사정책』을 배우고 -

유 덕 / 사미니과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서 노스님이 말씀하신다.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

깨진 독에 물을 채워라니, 어떻게 그런 주문이 가능할까? 해결방안이 있을까? 그 장면을 보며 당시 내가 속한 세계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나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을 거라는 강한 생각에 이끌렸다. 이 의문들은 달걀 껍질을 깨지 못하던 나를 자각하게 해 준 대사전이었고, 지금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준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달걀 껍질을 켤 수 있게 도와주는 곳, 강원이다. 초를 다투는 바쁜 일과 중 우리에게 주어지는 2시간의 귀중한 수업시간이 있다. 처음 보는 한문으로 된 책, 숲을 보기는커녕 한 그루 나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위산 대원선사정책’ 끝났다. 제목부터, 수업시간에까지 정책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의 거부감을 주었지만, 선사의 애정 어린 정책의 말씀은 위산 대원선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위산 대원선사는 중국 복주 사람으로 15세에 건선사 법상율사에게 출가하여 계를 받은 뒤 대소승의 계율을 배웠다. 23세에 강서에 가서 백장 회해선사를 만나니 백장이 보자마자 바로 입실을 허락하여 학자들의 우두머리에 있게 하였다. 이때 사마두타가 호남성 일대를 다녀와서 대위산의 주인을 찾고자 하여 선택된 재목이 위산 대원선사였으니, 당시 입승을 살던 화산의 보림선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백장 회해선사는 대중이 모두 모인 가운데 두 선사의 우열을 가리게 된다.

물 향아리 하나를 대중 가운데 놓아두고 백장스님이 말씀하셨다.

“물 향아리를 물 향아리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겠느냐?”

보림일려라 - 물 향아리를 보고 나막신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물 향아리다, 아니다 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진실을 살짝 감춤.)

영우일려라 - 영우스님은 뚜벅뚜벅 걸어 나와 물 향아리를 발로 탁 차버렸다.(물 향아리로 인해 시시비비가 있으므로 그 자체를 없애서 시시비비의 뿌리를 끊어 버린 것.)

백장스님이 말씀하신다.

“수좌가(보림선사) 촌놈(위산 대원선사)에게 뺨을 맞았구나. 위산영우가 대위산의 개척자로 가거라.”

그 뒤 대위산으로 가 양산혜적과 함께 큰 도량을 건립하고 선문의 위앙종을 이룩하였으며 당대에 3천명이나 되는 대중을 거느렸다. 그 문화에서 통달한 이는 셀 수 없고 입실한 제자만도 41명이나 되었다.

당의 대중 7년 정월 9일에 세수하고 편안히 앉아 태연히 떠나셨으니 세납은 83세요, 법랍은 64세였다. 위산에다 탑을 세우니 대원(大圓)선사라 시호를 내렸고, 탑호는 청정(淸淨)이라 하였다.

후학 양성을 자신의 수행 방편으로 삼아 반평생을 힘쓰신 삶의 모습이다. ‘위산 대원선사경책’도 또한 하나의 방편인 듯싶다. 이 글은 무엇보다 四大로 이루어진 몸이 큰 근심거리를 말하고 출가인의 허물을 날달이 밝힌 뒤 출가인의 正因과 入道의 지름길을 남긴 글로 『佛祖三部經』 중 하나이다.

40여 년을 대위산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신 선사께서 대중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크셨을 것이다. 당나라 말 승가의 가풍을 몸으로 느끼면서 衰哉切心으로 후학들을 경책하기 위해 管見으로 쓰셨다 하나, 직설적이고 간절하게 승가의 폐단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받으셨을 고통을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릎을 탁 칠만한 비유로 때로는 신랄한 비판과 날카로운 충고로 빈틈없이 짜여진, 작고 작은 행동거지로 부터 소소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따끔한 경책이 도리어 가슴을 울리고, 안타까움과 간절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비단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나 반대론자는 존재한다. 한 사회의 큰 흐름이 인일과 부패로 흘러갈 때 그 물결을 되돌리고 바꾸려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 중국 당나라 말 한참 혼란스러웠던 시절 선사는 승가의 안일함을 일깨우는 용감하고 자비로운 Anti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치열한 수행을 후학의 양성에 회향하신 선사의 행적은 그 자체가 우리 초심자들에게 큰 가르침으로 또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다가온다.

다음은 앞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지해청(智海淸)의 계송이다.

백장의 당 앞에서 위산 주인 고르는데
황금털 사자들은 있는 위세 다 부렸네.
물 항아리 쓰러지자 근본자리 돌아가니
천리의 순풍이 땅덩이를 움직인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해결 방안은 그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제의 상황에서 뛰쳐나와 외부에 두 발을 딛고 서서 망정에 고달리지 않는 상태로 보았을 때 땅덩이를 움직일 만한 천리의 순풍이 불어올 것이다. ☸





오늘, 우리는 하나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 태국 제 3회 UN Vesak-day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

효 탄 / 운문승가대학 중강

'유엔 베삭데이(UN Vesak-day)'? 용어부터 낯설다. 왜 'UN'이라는 명칭이 붙으며 이런 행사를 태국에서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혹을 품은 채, 타이항공에 몸을 실었다. 국제행사라 몸이 고단하겠구나 하는 부담과 단순히 태국이 처음이라는 기대감도 가지면서... 그러나 첫 날 전국 비구니 회장 명성 큰스님(운문사 학장)을 모시고 돈무앙 공항에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꼭' 한숨이 나왔다. 나중에서야 예상보다 많은 47개국 4천여 명의 불자들이 왔기 때문이라는 소리에 눈과 귀가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태국에서의 일정은 시작되었다.

유엔 베삭데이는 1999년 UN에서 정식으로 "부처님의 탄생과 득도, 열반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태국에서 행사를 가지기로 결정하고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기로 한 날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처럼 세계적인 기념일로 정해진 날이니 마땅히 축하해야 할 일이다. 때문에 47개국에서 4천여 명의 상좌부·대승·금강승 불교도들은 모두가 한 자리에 단지 '뭉다'라는

이름 아래 모였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고무되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이번 제 3차 베삭데이 행사는 태국 푸미폰 국왕 즉위 60주년을 겸한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태국으로서는 더욱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 행사를 전체 주관한 마하출라대학교(Mahachula University)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태국 승단의 도움으로 각국 대표단과 외교사절단을 초빙하여 불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세계 불교 지도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일정은 5월 7일~10일까지 풋타몬트 대회장과 UN Center를 오가며 빽빽한 일정 속에서 많은 메시지와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7일에는 개회식 및 각국 대표 메시지 전달, 8일 1. 불교는 세계평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 불교가 어떻게 하면 국제화가 되어 세계 중심에 서게 될 것인가? 3.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전파할 것인가?라는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9일 Forum에서는 1. 불교와 세계평화 2. 현대사회에서의 불교교육 3. 불교포교의 방법 4. 불교문화의 보존과 전승 5. 세계

의 불교 Net-Work화 6.불자들 간의 협력 7.불교와 여성에 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두들 경청하고 크게 공감하는 일들이었다. 대회 발표자들은 “무엇보다도 불교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고, 그 기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여러 대표들의 메시지와 발표 및 토론이 있었으나 지면이 짧은 관계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추려볼까 한다. 태국 승단 대표인 종정스님(95세)께서는, “이번 회의가 태국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 세계로 자리 매김이 되어 전 불교도가 종파와 소속, 대승 등을 떠나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간곡하게 전하였다. 또 태국 부총리는 “타이 정부는 왜 불교를 지원하는가?”라는 물음에 스스로 “불교는 세계평화를 위해 편견과 차별을 물리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호 이해와 존경은 인류가 해야 할 일이므로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 세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이고, 특히 태국 국민은 이번 기회를 기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현재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학수 박사는, “불교는 유엔 참가국을 초월한 세계평화의 명제를 위한 종교로써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번 베사데이를 기해서 갈등과 가난, 질병, 불평등을 해결하고, 자비, 무폭력, 화합을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한국 측은 회장스님을 모신 12명의 비구니 대표단과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스님 이하 동국대학(원) 스님 85명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대거 참여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물론 태국 베사대회를 통해 국제적 단합과 안목을 갖추는데 있다. 그런데 비구니 회장단 스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참석하셨다. 그것은 태국 비구니 승단의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태국에 니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계를 받지 않은 니승들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계를 받아 온 니승들이다. 일찍이 2004년 ‘제 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사카티타)’에 태국 마하출라 대학의 부총장인 치티코스님은 비구

의 신분으로서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때 한국 불교에서의 비구니 및 여성 불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 크게 놀라며 태국에서도 비구니 승단이 서기를 간절히 바랬다 한다. 이번 초청도 치티코스님의 노력이 컸음은 말 할 나위가 없다. 회장스님께서는 종정스님과 마하출라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명확하고 당당하게, “태국에서도 비구니 승단이 건립되어야 합니다”라고 촉구하셨다. 아! 이 순간, 이 한 말씀은 회장스님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緣故가 아니겠는가. 돌아와서 안 일이지만 이 일을 한국 불교계 신문에서는 대서특필을 하였다. 불법 안에 여성 출가자의 존재는 이미 부처님 在世時의 일이었다. 한국의 경우 출가자의 반수는 비구니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의 법에 따라 태국 승단도 비구니가 승단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폐막식 날, 어떻게 하면 불교가 국제화가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한 ‘행동강령’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즉, 불법사회의 창조를 위해 더욱 더 많은 사회 참여와 명상교육의 확대, 어린이 불교교재 개발 및 불교 출판의 활성화, 불교 PR, 불교문화재의 보호, 여성·남성 간의 불평등 해소 등등을 13개 조항의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렇듯 짧은 일정 속에 정말 많은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은 개인 젊은 엘리트 승려를 중심으로 자국 불교의 세계화·중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태국도 역시 그렇다.) 우리를 뒤돌아보건대 ‘한국 비구니계가 세계 비구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자가당착이 아닌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으나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다. 좀 더 깨어있고, 나태해지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4

- 이 지면을 통해서 대회 참가를 위해 수년간 애써주신 서울 아산병원의 지홍스님, 대회를 빛내준 사찰요리 선제스님, 찬불가를 하신 정윤스님, 선무도를 해주신 이선욱교수, 풍역을 맡아준 홍희연 등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할까

신현림 / 시인

이 지상에서 보내는 햇수에 비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에 비례해서 사는 것이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



마음의 평화, 누구나 꿈꾸는 것. 그 평화로움은 장소를 옮겨도 크게 얻을 수 있더라.

최근 나는 이사하면서 장소의 중요성을 실감 한다. 물론 어디에 살든 머문 곳을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거나 천국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이다.

7년을 산 아파트를 청산하고 서울 한옥 전세집으로 이사온지 두 달이 된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대학 도서관과 가깝다는 최고의 장점과 식사값이 싼다는 잇점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아파트에 머물러 일하고 싶지가 않았다. 동향이고 집구조도 마음에 안들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아주 수월하게 얻은 현재 한옥집은 남향에다 리모델링 되어 이쁘고 넓은 마당 하나만으로

도 굉장히 평화롭다. 시간도 천천히 가는 기분이다. 내 딸만큼이나 다락방과 작은 뒷마루까지 자연 소재로 된 전셋집에 만족하며 커다란 안정감을 얻고 있다.

“그냥 집을 거저 얻었네”라고 농담을 들을만큼 썩 편이고, 안정감을 준다. 주인이 자부심과 큰 애정을 가진 집인만큼 내 집처럼 아낀다. 이상하게도 정이 간다.

나중에 이사 가게 되면 이사가지 뭐.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으나 이사는 변화잖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있다. 주인이 집을 좋은 거 가졌으면 뭐 해, 누리고 있는 건 난데, 농을 던지며, 바람에 실려오는 꽃 향기를 맘껏 들이마신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 향기를 맡으랴.

사실 나는 작년부터 소유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원하는 집을 갖고 싶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봤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 지금의 불편함과 괴로움을 겪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곳만 바라보다 비로소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곳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어쩌면 집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도 된다. 남 쫓아갈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냥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살 여력이 없다는 얘기도 된다.

경쟁, 성공, 재산을 불릴 큰 필요성도 못 느끼겠다. 미래를 위해 뛰다가 지금이 즐겁지 않으면 뭐가? 그냥 현재를 즐기며 살기로 했다. 인생의 승리자는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 있듯이 “젊음은 웃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세속적 부자란 의미가 내게는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내 통장에 일곱달 살 돈이 있다. 연재 건은 하나 밖에 없다. 간간이 들어오는 강연과 청탁과 선인세로 2년을 살아볼 생각이다. 재산도 없지만 재산을 불릴 여력도 마음도 없다. 그러나 작업은 치열하게 할 것이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낙천적인 마음으로 지내기로 하였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서 내 삶속에서 더 이상 놓칠 것들이 없이 애쓰고, 진정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볼 것이다. 요즘은 그럴 여유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내 일을 열심히 하며 지금 이 순간 온 기쁨을 만끽하기.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축복이 생길 것이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웃는 날이 많도록 하자. 물과 같이 흘러가며 돌에 부딪혀도 물이고, 갯벌을 넘나들어도 물이듯이 평상심을 잃지 말고 다만 기쁘게 살아갈 것. 숨을 깊게 내쉬고 음악을 크게 틀며 춤도 추다가 몰두하여 일하기, 그 외의 것은 신의 손길에 맡길 것. 

약력 | 경기 의왕 출생. 아주대에서 문학을, 상명대 디자인대학원에서 사진 전공. 세 권의 시집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와 <세기말 블루스>, <해질녘에 아픈 사람>을 냈다.

첫 사진전과 함께하는 산문집 <아! 인생찬란, 유구무언>과 영상에세이 <나의 아름다운 창>과 미술에세이 <신현림의 너무 매혹적인 현대미술>과 박물관기행 산문집 <시간창고로 가는 길>, 자전적에세이 <싱글맘스토리>등이 있다.



Buddha's Answers

What is 연기?

緣起 *Dependent Origination*

從緣生

To arise from conditions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긴다.

從緣滅

To be extinct from conditons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이 멸한다.

我有波有

If I exist, that exists

내가 존재하면 저것이 존재한다.

我滅波滅

If I cease to exist, that ceases to exist.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The Compass of Zen』

(선의 나침반)

more & more

十二緣起 *(The Twelve Links in the Chain of Dependent Origination)*

無明 — Ignorance	行 — Mental formations (Karma)	識 — Consciousness	名色 — Name and form
六入 — The six senses	觸 — Contact	受 — Sensation	愛 — Desire
取 — Clinging	有 — Existence	生 — Life	老死 — Old age, death

항상 보고 싶은 은사스님께

연두빛을 호적으로 덧칠한 순거산을 보며 질어가는 녹음만큼이나

저의 공부도 질어지길 다짐해 보는 여름입니다.

스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치문 첫 칠의여러기만 하던 새싹이, 어느덧 뿌리를 내려 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의 밝음으로 클거이 자라는, 어지간한 시련은 거뜰히 이겨낼 수 있는 뽕門의
한 표목으로 커 가고 있습니다.

저게 있어 저를 자라게 하는 가장 큰 양분은 스님입니다.

제가 강원에 올 때 스님께서는,

"네가 힘들고 어려운 대중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강원에 가면 많은
스님들을 만나게 된다. 항상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도반과 함께 공부 잘 하거라"
하셨죠?

스님 말씀대로 강원에 와 보니 대중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스님들과 예불할 때나, 스님들의 차례법문을 듣거나, 강사스님의
수업을 들을 때면 교점을 만난 제 자신이 참으로 복이 많다는 생각에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스님을 만난 것도요.

'인간으로 태어나 형상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지 않고, 수행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치문구절을 배우며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시 서원해 봅니다.

밭에 뿌려 놓은 씨앗들이 어느새 뚝뚝 자란 것을 보니 혼자 농사일로 바쁘실
스님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스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농사 일도 좀 즐기시고요 ...

여름 반짝이진 아직 멀었지만, 스님 뵈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6월의 푸른 바람 부는 집 - 청풍로에서
상좌 도혜 올림



푸

른 나뭇잎들이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온 대지를 품고 있는 계절, 우리는 남녘땅 최고의 영산(靈山) 지리산으로 향했다.

우리가 찾아간 서암은 경남 함양 마천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1960년 초 원웅스님께서 6·25때 무고히 죽어간 지리산의 수많은 원혼들을 위로하고, 남북한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고자 벽송사로 오시면서 불사를 시작하셨다 하니 더욱 뜻 깊은 곳임이 틀림없었다.

10년에 걸친 불사이고 보니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석공 홍덕희님의 손길과 스님의 지극한 기도와 원력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아름다운 서암의 굴법당이 조성될 수 있었을까 의심해 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문가도 아닌 원웅스님께서 직접 밑그림을 그리셨다니 ...

㉞ 사천왕상과 대방광문(大方廣門)

'참배객 가는 길'이라 적힌 안내판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더니 불국토를 수호하려는 듯, 5m가 훨씬 넘는 키의 우람한 사천왕상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큰 바위 덩어리를 조각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세했고, 섬광같이 부릅뜬 눈과 역동적인 사천왕의 몸동작들이 우리의 망상과 모든 거짓됨을 여의게 하여 엄숙하기 까지 했다. 합장삼배하고 계단을 올라가니 아치형의 문이 나왔다. '대방광문(大方廣門)'이라 새겨진 문을 통과하는 우리는 마치 화엄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는 듯 했다.

㉞ 굴법당

여느 절처럼 곱게 단청한 전각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저 정갈한 한옥 건물만 보일 뿐이었다. '방하계연



(放下諸緣)'이라고 새겨진 팻말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버리지 못한 세속의 구연(舊緣)과 근심, 미련, 시기 그리고 달콤했던 유희적 감각조차 다 떨치라는 듯 보였다. 미타전 편액이 붙은 한옥 앞을 지나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니 저만치 언덕 같은 곳에 극락전(極樂殿)이란 글씨가 보였다. 아기가기하게 꾸며진 도량을 돌아보며 안양문(安養門)을 열고 굴법당으로 들어섰다. 굴 전체를 섬세한 조각으로 장엄한 아미타세계를 보고 우리는 환희심이 절로 났다. 아미타부처님을 중앙에 모시고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그리고 8대 보살님, 10대 제자, 나한, 사천왕 등은 물론 용, 연꽃, 가릉빈가(迦陵頻伽) 등이 굴법당 벽과 천장 전체에 조각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인위적으로 돌을 깎아 내지 않고 굴의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를 살려 조각되어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놀랐다.

88 비로전

굴법당을 뒤로 하고 산 쪽으로 난 돌계단을 올라가니 비로전이 있었다. 삼각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커다란 자연석 제일 위쪽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돌을 받치고 있는 아래의 돌 세 개에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선재동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마치 지리산의 아랫마을을 선재동자의 미소와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환히 비추는 듯, 산 자락은 푸근하고 안온하게 느껴졌다.

88 산신각

비로자나부처님 좌측으로 커다란 바위에는 산신님과 독성님이 조각되어 있었다. 너무나 섬세하여 마치 산신님이 거느리고 있는 호랑이 콧수염은 바람에 날리고, 독성님 옆 꽃사슴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였다.

우리가 서암을 찾은 날 원웅 노스님을 뵈게 된 것은 참으로 큰 행운이었다. 주장자에 기대신 모습은 당당한 신장님 같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상함이 가득하였다. 특히 서암이 화엄도량을 이루게 된 데에는 노스님께서 불사를 하면서 시작한 화엄경 사경이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내에서 유일한 '80권 화엄경 금니사경전(金泥寫經典)'이다. 금니사경전은 노스님이 85년에 시작해 참선하는 사이사이 감지(紺紙)에 금분으로 화엄경 60만자를 옮겨 쓴 것으로, 12년 만인 1997년에 완성되었다.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 독송하는 것이 수행이다. 물론 절, 기도도 수행이지. 허나 어떤 것도 깊게 몰입하지 않으면 수행이 아니야. 지극한 마음으로 경을 써 보면 사경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말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어야지, 피눈물 나는 장애없이 수월하게 수행하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야. 젊음을 마쳐 수행해야 해.”

10년에 걸친 원력불사로 굳은살이 가득하신 손으로 직접 佛자를 써 주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스스로를 반성해 본다. 우린 환하게 웃고 계신 노스님을 뒤로 한 채, 각자의 가슴에 重重 華嚴法界를 안고 내려왔다. फ़

사별의 눈물을 거둔 두 사람

이미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가까운 분이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딸 낳고 복닥복닥 살아오다 이제야
숨 좀 돌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홀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내의 가슴에는 깊고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
침에 눈을 뜨면 비어있는 옆자리가 너무 쓸쓸했고 부
부가 나란히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홀로 버려진 처지
가 서글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시선
을 비스듬하게 던져도 '내가 남편이 없어 저러나' 싶
은 생각에 남들 앞에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였습
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서 일
주일 동안 쌓였던 서러움을 싣듯 토해내었습니다.

그 날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을 찾아가 백
년해로의 약속을 저버린 무정한 남편의 차가운 비석
을 끌어안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였습니다.

"자,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에 비석을
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
었습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겼을 젊디젊은 소복 차
림의 여자가 잔디밭에서 뛰어 노는 어린 아이를 부르
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조르르 달려
와서 새하얀 비석 하나를 향해 절을 하였고 젊은 여
인은 두 손을 모은 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것
이었습니다.

슬픔조차도 너무나 무거워 남편과 함께 물어버렸
는지 젊은 여인의 표정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허무함
만 가득 배어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
던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회노

애락을 누릴 만큼 누리고, 자식들도 장성하여 제 갈
길을 잘 가주고 있는 지금, 황혼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짙기는 하지만 지금 저 여인만큼이
야 하겠습니까? 티격태격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면서
깊어지는 부부의 정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소복을
입어야 하는 저 젊은 여자의 처지에 비한다면 자신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까? 저렇게 젊은
아내와 귀여운 자식 둘을 남기고 떠나야 했던 젊은
가장은 눈이나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바로 전까지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리던 눈물은 어
느 사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석에서 손
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 날 이후 두
번 다시 남편의 비석을 끌어안지 않았습다. 만사
제쳐두고 주말마다 찾아가던 걸음도 차츰 그 횟수를
줄였고, 비석 앞에 서서 더 이상 서러운 눈물을 흘리
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살아 계시던 시절 키사 고타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사랑을 담백 담
아서 아이 기르는 낙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홀연히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
었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하소연하
였습니다.

"내 아이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말해주었지만 그녀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죽다니요?"



이미 썩어가기 시작한 시신을 안은 고타미는 결국 부처님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아이를 살려줄 수 있소.”

더할 수 없이 귀가 솔깃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일단 품에서 아이를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동네를 다니며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집만 골라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 오시오. 그것만 있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소.”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고타미는 당장 동네를 다니며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신은 어느 집이나 가리지 않고 울타리 안에 숨어서 살아 있는 사람을 데려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모든 집을 두드리며 겨자씨를 구하던 고타미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어난 것은 모두가 죽는구나. 죽음을 피해간 이는 하나도 없구나.”

그녀는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아이의 시신을 그토록 완강하게 끌어안고 있던 자신의 두 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움켜쥐었던가? 내가 무엇을 끌어안았던가? 아이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니다. 어찌면 처음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신이 날것질을 한번 하니 그토록 내게 다정하게 보내주던 눈길을 한순간에 거두지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나 역시도 내 아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부처님에게 돌아간 고타미는 말하였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를 장례 치려하겠습니다.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을 향해 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제 눈물은 그만 흘리겠습니다. 그 대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의 죽음만을 이쉬워하는 어리석은 저를 위해, 여전히 욕심부리고 원망을 품고 미련을 떠는 저를 위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 처량한 장송곡이 저를 위해 울리기 전에 가장 단단한 생명을 찾아 나서고 싶습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게 당연한 법이야’라며 누구나 자신 있게 말은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나도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은 맞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맞아들이는 하더라도 언제까지 원치 않는 손님을 맞아들이며 눈물을 뿌려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치 않는 손님을 현명하게 물리치는 법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남편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던 중년의 부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키사 고타미. 두 사람은 이제 슬픔의 눈물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찬 여행에 나섰습니다. 나도 서둘러 그 여행에 끼고 싶습니다. 당신도 나서지 않으시렵니까? ☺

어떤 생활

혜 가 / 대교과



지금 이순간
이 자리를 살피
유희에 빠진 삶의 그림자를
바로 세운다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

편집부

하루는 어떤 스님이 동산선사에게 선문답을 했다.

“추위와 더위가 딱신다면 어떻게 피하시렵니까?”

동산선사가 말했다.

“너는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피할 줄을 모르느냐?”

그 스님이 말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동산선사가 말했다.

“추울 때는 너도 추우면 되고,

더울 때는 너도 더우면 되지.”

『동산양재화상 어록』 중에서

나는 정말 수행자다

- 무여스님을 뵈고 -

혜 준 / 대교과



출가하여 스님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몸뚱이의 편안함을 구해서도 아니며,
등 따습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며,
이익을 바라고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생사 문제를 위함이며
부처님의 壽命을 잇기 위함이며,
삼매를 벗어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라.

고요한 축서사의 새벽예불.

스님이 소리 없이 법당에 들어오셔서 부처님께 절을 하신다. 이마를 좌복에 대고 일어날 줄 모르시는 그 간절한 스님의 지극한 마음과 넉넉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았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길이며, 최상의 길이다.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진실한 마음자리 찾아가는 이 공부, 스님께서는 늘 공부 이야기만 하신다. 그렇게 만난 큰스님과의 인연으로 나는 출가를 하게 되었다.



큰스님 탐방에 나선 우리는 한낮이 되어서야 축서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태양은 웅장하게 서 있는 사리탑을 뜨겁게 비추고, 확 트인 시야로 들어오는 태백산 자락의 장엄함과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기도스님의 목탁소리가 도량에 가득하다.

스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우리들의 고집을 세워 찾아온 터라 걱정이 태산이었다. 안 만나주시면 어쩌나...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스님을 뵈 수 있었다.

“그래.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

“스님은 스승님의 준말이다. 보통사람을 제도하려면 보통 이상이 돼야 한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행력을 갖추어야 해. 세속에서 학교 공부할 때보다 더 애쓰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바깥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너희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겠나? 강원 있을 때, 잘 살아야 한다.”

한시도 쉬지 않는 우리 마음의 시비분별이 스님의 맑고도 강한 눈에 비치는 듯,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스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스님의 자애한 미소와 음성 앞에 자신들의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간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몸소 보여 주시는 큰 스님께서는 초심자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세심하고도 정성스럽게 알려주신다.

해태심(懈怠心)

처음 출가 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발심해야 된다. ‘나는 정말 수행자다.’라는 생각을 늘 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생각, 마음까지 전부 다를 조심해서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

늘 하루를 결산하듯, 점검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는게 좋아. 잘한 것은 더 잘하려고 하고 못한 것은 바로 고치고, 바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메모라도 해서 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매일 발전해야 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도록...

전심(瞋心)

강원 생활하다 보면 갈등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나면, 나는 그 순간 바로 부

처님을 생각해라. 염불하는 사람은 얼른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화두 잡는 사람은 얼른 화두를 들고, 되게 괴롭고 어려울 때는 소리를 내서 하면 이내 진심은 사라진다.

다툼 같은 게 있으면 스님이라 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은 안 가져야 된다. 스님 생활은 예사로워서는 안 되는 거야. 뼈를 깎는 심정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써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살면 그냥 좋아지고 달라진다.

경전(經典)

학인 시절에는 오직 經에 빠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쨌든 강원에 있을 때는 책을 놓지 마라. 종이에 배껴 쓰거나 손바닥에 써서 왜 만한 經句는 다 외워야 돼. 경전에서 안 떠나야 된다. 오직, 경전, 경전. 그래서 경전의 물에 푹 젖어서 일거일동이 부처님처럼 보여야 된다. 농담을 하더라도 경전의 좋은 말씀을 인용해라. 스님네는 부처님 냄새가 막 나도록 살아야 된다. 방귀를 끼더라도 부처님 냄새가 나야 된다.

생활(生活)

오후 불식은 누구에게나 다 권하기는 어렵지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飢寒에 發道心이라 했제? 춥고 배고픈데서 도심이 난다는 말이다. 수행자는 늘 좀 춥고, 좀 배고프고, 좀 부족할 정도로, 더 먹었으면 싶고, 바로 먹고 책을 보더라도 졸음이 안 올 정도로 먹어야 된다. 먹고, 입고 주거 하는데 좀 부족하게 해라. 음식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아무리 많더라도 나보다는 남에게 보시하고 베푸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라.

계(戒)

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학인으로서든 물론이고 스님으로서도 안 된다. 계율을 어기면 스님이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야 되고 어김이 없어야 돼.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훗날 포교사나 주지나 어떤 분야에서 무슨 소임을 보더라도 기본은 갖춰야 돼. 계는 기본이지.

반연(攀緣)

세속하고 인연을 맺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잘 하는 길인가, 아니면 완전히 끊고 사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안 끊어도 괜찮아. 그런데 학인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도움이 될 사람은 백에 한 사람도 없어. 세속하고 인연을 맺고 교통하고 언제 공부하겠나. 일도양단 하듯이 참으로 끊고 해도 공부에 지장 없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될 수 있겠어? 오직 발심해서 잘 생각해야 돼. 이 공부는 수행이 바탕이 돼야 한다. 평생 선원에 안 다니더라도 마음공부를 잘 닦아 놔야 불교가 뭐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승려 생활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부처님(佛)

불교를 참으로 알려면 이론적으로도 잘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부' 자도 모른다.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포교 활동하고 가르칠 수 있나? 제대로 알려면 선을 해야 해. 우선, 화두를 받아야 되고 강원에서 배운 서장이나 선요 등 중요한 선어록을 한두 번쯤 자세하게 읽고 선원에 갈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훌륭한 스님에게 기본적인 상식이나 갖춰야 될 점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

공부는 지금부터 하는 거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큰 포부를 안고 열심히 수행해서 도인이 되도록 애쓰거라.

스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읽고 계시는 것일까?

자비가 스민 정성스러운 법문이 흘러 우리의 마음에 오래 고여 있었으면 좋겠다. 애증에 험뎌여 심장이 달아있을 때 피내 쓰기 위해서 이처럼 스승님의 말씀은 십년 가뭄에 갈라 터진 논바닥의 감로수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고이 스며든다. 이미 앞서간 걸음이 저만큼 멀리 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한 걸음 두 걸음 배우고 들은대로 뚜벅뚜벅 앞을 보고 걸어가자. 언제나 걱정스럽고 성에 차지 않는 듯한 어른스님들의 그 염려의 눈빛을 거두실 때까지.

도량 이곳 저곳을 둘러보니 가지런하게 쌓아 올린 축대며 깨끗하게 비질이 되어 있는 마당에서도 오롯하게 납자로서 살아오신 스님의 수행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의 끝을 잡고 장렬히 타오르고 있는 일몰이 저처럼 온 힘을 다해 하루를 살았는지 묻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언제나 우문(愚問)일 수밖에 없는데도, 스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 애정을 담아 지극하게 말씀 하신다.

불교적인 수행은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놓고 순수하게 사는 것, 조미료를 넣지 않고 담박하게 음식을 먹듯이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일러 주신다.

물음을 청하고 답을 구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함이고, 불법은 몸소 실천할 때 한결 더 아름다운 꽃 향기로 주변에 녹아난다.

순간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

그렇게 세월만 보내면 십년 이십년을 살아도 실익(實益)이 없다.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언제나 '나는 정말 수행자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공양 후 탑돌이 하시는 큰스님.

흰 고무신에 조용하고 정성스러운 발걸음. 마치 곁에 계신 부처님을 대하듯...

처음 스님을 뵈는 모습이 떠오른다.

눈가로 미소짓는 자애로운 스님의 온화한 모습은 어느새 사리탑과 하나가 되어 나의 마음을 모은다. ॥



김자반!! 그 행복의 결정체

선 행 / 사교과

햇살이 따뜻한 어느 화창한 날이었다.

아침 공양 후 스님이 후원에서 집간장, 진간장, 엿, 깨소금 등등을 찾아 대신다. 나는 스님의 부름에 즉각 양념류를 대령하기에 정신이 없었고, 얼마 후 한 냄비 가득히 끓여 나온 간장은, 다름 아닌 김자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한다.

김자반!!

그것은 생전 처음, 출가 후 알게 된 밑반찬이다.

간장 끓이는 것부터 고명으로 올려질 제피잎 손질하기, 공양상에 올려지기 위해 한 입 크기로 자르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나는 해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보아 왔고, 또한 만들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과정을 얘기하자면 이랬다.

김자반을 만들려면 우선 집에 있는 크고 작은 차판들을 모두 집합시켜야 하고 토시, 앞치마, 밀짚모자는 기본! 생김 두 장의 귀퉁이를 맞추어서 1/2로 접고, 다시 1/2, 또 다시 1/2로 접어서 끓여 식힌 간장에 통깨와 제피잎을 가득히 넣은 후 접은 김을 그 속에 잠수시킨다. 접은 김이 어느 정도 기세가 누그러지면 본래의 김 크기로 펴야 한다. 이때 우리 스님의 한 말씀, “김자반의 생명은 김 피기를 잘 펴야 하는 거. 잘 못 피면 이도 저도 아닌 김만 버려야 허.” 이렇게 차판에 두 장이 한 장이 되어 버린 김을 짹짹 퍼서 제피잎과 통깨를 사각형 모양의 김에 골고루 뿌려 웅달의 작업장에서 햇볕이 좋은 양달로 옮겨야 하는데 김자반이 끝나기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한다. 햇볕이 잦아들면 널려 있는 김자반을 뜨끈뜨끈한 방으로 옮겨 말리기를 계속, 그 다음날이 되면 바삭바삭한 김자반이 완성된다. 그러면 그것을 가위로 한 입 크기로 잘라 비닐 팩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언제든지 밑반찬으로 상에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간장을 잔뜩 먹은 두 장의 김을 한 장처럼 만들려면 팔 때 진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속 만들고 있으면 눈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깨, 허리, 머리까지 옥신옥신거린다. 그러다 보니 난 겨울철 내내 생김을 스님한테 선물하는 사람이 가장 싫었다. 왜냐하면 김을 묵히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 스님의 지론이었고, 많으면 많을수록 만들어야 하는 자반의 수는 증가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일까? 난 공양상에 올라온 김자반을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매번 다르게 와 닿는다. 사실 나는 내가 만든 김자반을 한 번 이상은 먹기가 싫었다. 그 제작 과정을 생각하면 차마 젓가락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던 사교 봄방학!!

방학이 되기 전부터 나는 집에 가면 당연지사로 김자반을 만들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으로 하나, 둘 도반 스님들을 꼬서 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잘 넘어가지 않는 도반 스님들!

다행히 한 스님을 붙들어서 김자반을 만드는 날.

도반 스님은 처음에는 신기해 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만들기보다는 생김을 계속 입으로 넣는 것이었다. “스님, 왜 그렇게 생김을 많이 먹어요? 배고파요?” 그 스님, 은사 스님 눈치를 슬슬 보며 하는 말, “생김을 먹어 치워야 자반 만들 김이 줄어들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웃겨 우린 서로 마주보며 실컷 웃었다.

처음 출가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든 김자반을 은사스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고, 난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때마다 스님은 “참 니는 이상한 아다. 그럼 이걸 니 혼자 다 먹을 기가?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냐” 하신다. 하지만 나는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사시 기도 마치고 법당에서 내려오니 마당 한가득 배추며 알타리, 열가리배추 등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이었다. ‘아니 김장철도 아닌데 왜 김칫거리!’ 그날 나는 점심공양 마치자마자 배추를 다듬고, 썰고, 소금 뿌리고, 고추 갈고, 풀 끓이고 ... 정신없이 김치 담그기에 열중, 저녁 공양시간 5분 전까지 바쁘게 설친 후 한쪽 벽 옆에 빼곡히 쌓인 김치통을 보면서 한숨을 토해냈다. 그런데 글썽 스님은 그 김치를 전부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었다.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 강원에 와서 ‘보살행’, ‘보시’ 라는 말을 듣고 보니 그제서야 난 스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웬지 내가 만든 음식이나 보살님들이 만든 음식보다, 은사 스님이 만든 음식은 특별히 맛이 있었다. 그런 스님을 모두 숨씨가 있다고 좋아했고, 스님 또한 모든 것은 정성이 최고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셨다.

그런 은사 스님 밑에 살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결코 이웃들을 무시하고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힘들게 만든 김자반과 김치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행복의 결정체이고 회향심의 발로였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다음 해에도 계속 만들 김자반과 김치,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래 하 / 사집과

삶은 뭐라 했던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삶의 여정에서 뻗속 깊이 사무치는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어머니의 죽음 …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내게 있어서 어머니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분만큼은 오래오래 살길 바랬다. 그동안의 힘겨웠던 세월들을 다 보상해 드리고 싶었다. 행복했던 시간보다 아픔의 세월이 많았던 어머니. 그러나 나의 마음이 무색하게 어느 봄날 갑작스레 쓰러진 어머니는 거동도 못한 채 몇 년을 그렇게 지내며 병은 더욱 깊어갔다. 시간이 갈수록 차도가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설상가상으로 찾아오는 일들이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고통의 무게로 나를 지치게 했다. 그저 살아있음으로 그냥 살아야 하는 슬픈 존재인 내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세상은 온통 날 힘들게 하는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절망의 늪 속에서 난 희미한 빛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법의 인연이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했던가? 불교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작정 난 절을 찾아갔다. 그곳은 낮익은 고향처럼 참으로 편안했다. 그 편안함에 난 계속 절을 찾았고 텅 빈 법당에서 홀로 절을 하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이 심장마저 다 태워버릴 것 같아 온몸이 부서지도록 더 치절하고, 간절하게 절을 했다.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던가? 마음은 편한 듯 했으나 두려움

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대체 사는 게 뭐란 말인가?' 불안함에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내 안에 고통의 무게가 더 할수록 기도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은 내게 더 크게 다가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내 안에 고정관념들이 무너지고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상 속에 갇힌 새처럼 그 울타리 안에서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허우적거리다가 비로소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뭔가 얻고자 했던 내 안의 '나'는 사라지고, 그저 절을 할 뿐이었다. 그때부터 부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나를 안았다. 길 잃은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처럼 가슴 속이 환해지면서 가슴 벅찬 눈물이 흘렀다. 희망의 새벽을 맞이한 것이다. 인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으려 했던 내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졌다. 살아온 모든 인연은 온전한 나의 몫이었던 것이다. 어떤 것도 인연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어머니 또한 이제 보내 드려야만 했다. 한 사람의 일생이 행복했든 불행했든 간에 때가 되면 가야만 하는, 그렇게 뜬구름처럼 덧없는 게 사람의 일생이었다.

'내 것'이라 이름 지어졌던 것들을 가슴에서 하나씩 내려놓고 보니, 어제의 나는 내가 아니었고 오로지 이 순간의 '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세상은 예전과 분명히 달랐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던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었다.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이유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난 이 마음 안에 이 큰 세상이, 온 우주법계가 다 들어있음을 누군가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흐르는 물과 같고, 스쳐가는 바람이며, 불행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가운데서 힘이 생긴다는 것을 ...

그래서일까? 세간의 즐거움은 더 이상 내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다. 떠나야 할 것 같았다. 내가 걸어온 옛 전철을 누군가는 밟지 않도록, 그 길 위에서 행복을 나눠주리라 다짐하면서 ...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고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

그것은 결코 고통이 아니었음을, 다만 스치는 인연이었을 뿐.

사람의 가치란 있고 없음도 부귀영화와 지위의 높고 낮음도 아닌, 그 마음과 행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있을 것이다. 세상은 쉬이 얻어지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깨달음은 선재동자처럼 처절한 구도행각이 없이는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불구덩이 같은 지옥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중생의 고통이 다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관음보살의 원력처럼 이 불법의 바다에 내 전부를 던져 버리고 싶다.

소리에 물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랍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귀 기울여 듣는 일

편집부

당신은 노래하지 않는 새를 즐거이 노래하게 할 수 있는가?

소설 『모모』에 나오는 주인공 - 모모의 조금은 특별한 재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사람들은 모모를 찾아와 자신의 얘기를 하지만 모모는 그저 가만히 그 말에 귀 기울여 줄 뿐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하기엔 믿을 수 없는 지혜가 솟아나고, 망설이던 사람은 의지가 분명해지며, 소극적이던 사람은 용기가, 불행하던 이들에겐 희망과 밝음이, 싸우던 이들은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모가 그들의 말을 듣고 특별히 상담을 해 주었다던가 조언을 해 주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앉아 그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이다.

모모의 이러한 능력은 비단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번은 노래하지 않는 새를 즐겁게 노래하게 하기 위해 꼬박 일주일 동안 새의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일도 있었다.

돈금없이 웬 ‘모모 이야기’ 나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공간 속에서, 작은 일로도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조바심 내며, 혹은 서로가 전혀 상관없다는 듯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모’가 조금은 그리워진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개개인의 의사 소통은 점점 더 자유롭고 다양해졌으며 소통의 범위 또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개인 대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더 어려워졌다. 모두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차분히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 형제, 친구, 아무리 가까운 인연 사이라 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바랄 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재하다. 우리는 차분히 애정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배려심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서로에게 갈등과 이해가 아닌 원

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의사소통이 단절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자가 지닌 외로움은 더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뜻밖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은 그 어떠한 외부의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我相부터 내려 놓아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의 잣대와 충고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등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려는 것이니 철저히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좋고 싫음, 가깝고 멀'이라는 분별을 떠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포용력과 자비심을 갖추어야 한다. 관세음(觀世音)보살을 떠올려 보자. 그 분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나 판단을 내리거나 반발하지 않고 경청하는 성품을 갖고 계신다. 이렇듯 자비가 깃든 귀 기울임은 비로소 치유작용을 하게 된다. 누군가가 자비심이 깃든 마음으로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느껴지면서 자신을 방어하던 경계심이나 스스로를 한정지었던 심리적 억압 등이 해제되어 자신의 풍부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모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들이 자신도 놀랄 정도의 지혜로운 답을 스스로 얻고 자신감을 지닌 채 흡족해하며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모가 바로 이 자비의 마음으로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신의 이야기에 차분히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훨씬 더 여유로워지고 웃음을 띠게 될 것이다.

철저하고 맹렬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일수록 더러는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며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독선과 아집은 수행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장애물이다. 누구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이웃들을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야 할 사명감을 지닌 수행자들은 반대되는 사람들의 주장까지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만, 어떠한 이념이나 체제도 극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행위 자체는 단순히 남을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自他の 분별이 없어지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不二의 경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 '不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나와 너, 주관과 객관, 좋은 것과 싫은 것이라는 일체의 분별 경계가 사라지고 결국 일체 중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일체 중생의 즐거움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 되니 따로 자비심을 내어야 할 일도 없는 것이다.

이제 당신.

노래하지 않는 새를 즐거이 노래하게 할 수 있겠는가? ❀



고유 큰스님 결제 법문



한국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



간담회



선재스님 특강



여름불교학교

운·문·소·식

- 5월 17일 청풍료에서 여름철 개학공사와 각화사 고우 큰스님의 하얀거 결제법문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5월 19일 염불, 논어,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컴퓨터, 요가, 피아노 등 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5월 24일 쑥개떡 만들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5월 28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제 3회 경주남산 산길마라톤대회'에 어른스님과 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5월 30일 여름철 첫 자초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5월 31일 단오를 맞아 대중스님들의 신행이 있었습니다.
- 6월 1일 ~ 2일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열린 '한국비구니 수행 전통에 대한 포럼'에 어른 스님들과 화엄반 스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6월 3일 문명대 교수님의 '한국의 불상'에 대한 특강이 선일당에서 있었습니다.
- 6월 3일 ~ 4일 제41차 전국 어린이 지도자 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자연생태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열려 교화부 스님들(40여명)이 다녀왔습니다.
- 6월 7일 청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대중스님들의 간담회가 전향각에서 있었습니다.
- 6월 8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6일 ~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 9차 세계여성불자대회(사카디타)에 학장스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 6월 14일 ~ 17일 봉도사에서 열린 '고려불화 특별전'에 대중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8일 사찰요리전문가 선재스님의 '음식과 사찰수행'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 6월 30일 감자캐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7월 7일 여름철 포살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7월 8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22일 호주에 사시는 지광스님의 '불교를 만난 인연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 7월 22일 일진 중강스님의 '미국에서의 한국불교, 어떤 모습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 7월 22일 ~ 24일 '푸른 숲 맑은 물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 28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 7월 26일 35일간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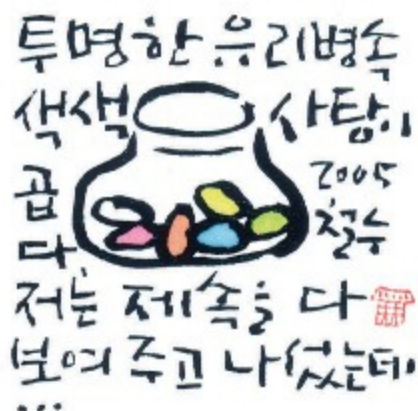
- 이기태 불자님
- 김진호 불자님
- 김창배 불자님
- 김벽기 불자님
- 한보산 불자님
- 실상월 불자님
- 장영상 불자님
- 최상희 불자님
- 이화진 불자님
- 백재측 불자님
- 목관화가 이철수님
- 허만옥 교수님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FAX 054-370-7169)



단단한 사탕알도 많은 물에 넣어두면 천천히 녹아 버립니다.
 저어주면 조금 빨리 녹기는 하겠지만,
 마음이야 어디 그렇게 되나요?
 조용해지고 투명해지면, 환해지고 솔직해 집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고 의심한다고요?
 핏대 올려 변명하고 부정해 볼 틈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탓일 가능성이 큼니다.
 오해라면 절로 풀리고 스러지겠지요. 절로!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E-mail : unmoon@chollian.net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97호·2006년 7월 13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비-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일진 / 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범안 / 편집위원·경석, 우연, 용주, 성호, 동우, 여욱, 성욱, 능고, 동조, 혜능, 능지, 범수, 동광, 문강 / 사진·운호
컴퓨터·범중 / 편집디자인·호 미디어 (02)2285-3366

